
코로나19가 글로벌/지역별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2020.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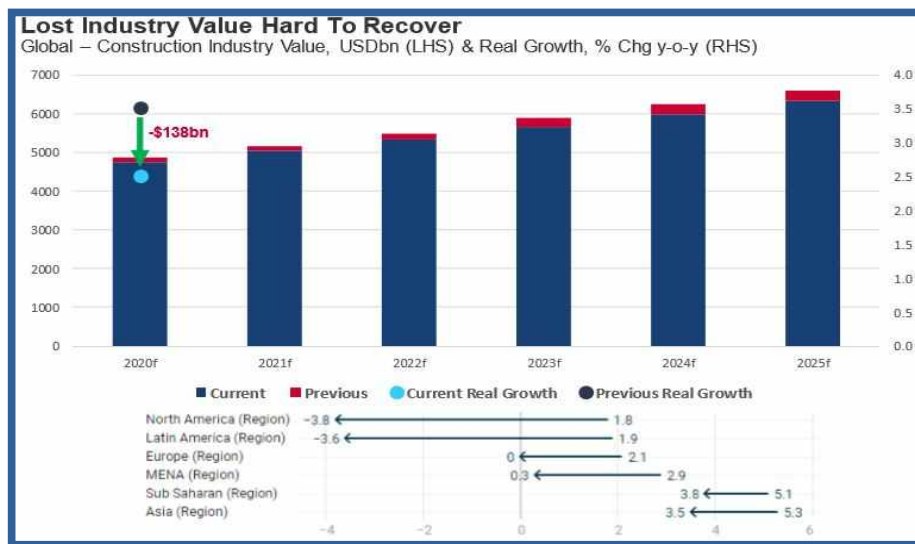


<Key View>

- ◆ Fitch는 전 세계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도시봉쇄조치(Lockdown)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하방압력으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건설시장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y-o-y) 0.9%로 하향조정함
- ◆ 글로벌 건설경기 회복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집행과 그 절대적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지출여력 감소,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단기적 반등이나 ‘V자’ 형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신인식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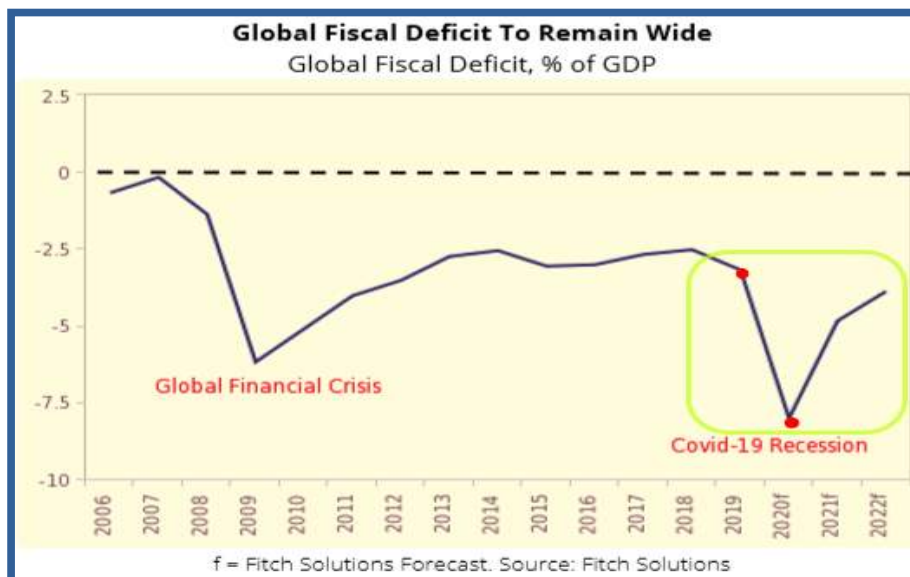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가장 선제적으로 확산되었던 아시아지역 내 나타난 가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Fitch는 전 세계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공식 하향조정함
- * 현재(4.15 기준) 유럽, 아프리카, MENA, 북·중남미 지역으로도 빠른 확산세가 지속되며 향후 추가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 이에 따라 2020년 글로벌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는 전년대비 0.9% 수준이며, 이는 2019년 말 Fitch에서 발표한 예상 전망치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 이번 성장을 하향조정에 따른 실질 ‘Value loss’는 1,38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기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 및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진행 및 발주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확진자 급증 현상을 보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SOC에 대한 정부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 등에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져 향후 정부 투자지출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단기 ‘악순환(Vicious cycle)’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아울러 Fitch는 각국 정부가 겪고 있는 행정 처리의 어려움(Operational restriction) 및 향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신규 인프라 투자 또한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 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에는 최소 약 1~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2021년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의 조기 안정화 및 향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 재정정책 확대집행이 글로벌 건설경기 회복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규모 재정 및 통화금융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며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상 수준으로 대폭 급증할 것으로 보임
 - * 재정정책 규모(2019년 GDP 대비): 일본(19.5%), 미국(10.4%), 싱가포르(7.9%)
 - ** 통화정책 규모(2019년 GDP 대비):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싱가포르(3.9%), 일본(1.6%)
- 이는 각국 정부의 향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및 지출여력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건설경기 회복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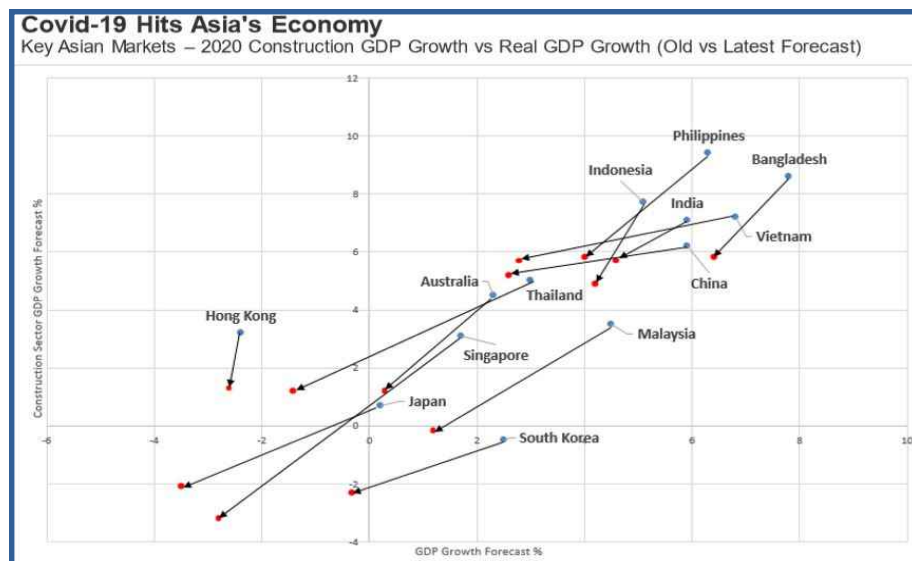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2 지역별 상세 분석

<아시아>

-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선제적으로 미친 아시아지역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는 전년대비 5.3%에서 3.5%로 하향 조정됨
-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성장 ‘수축기(Contraction period)’ 진입이 예상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추진되던 주요 대형 프로젝트 또한 기존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계획 철회와 도시봉쇄조치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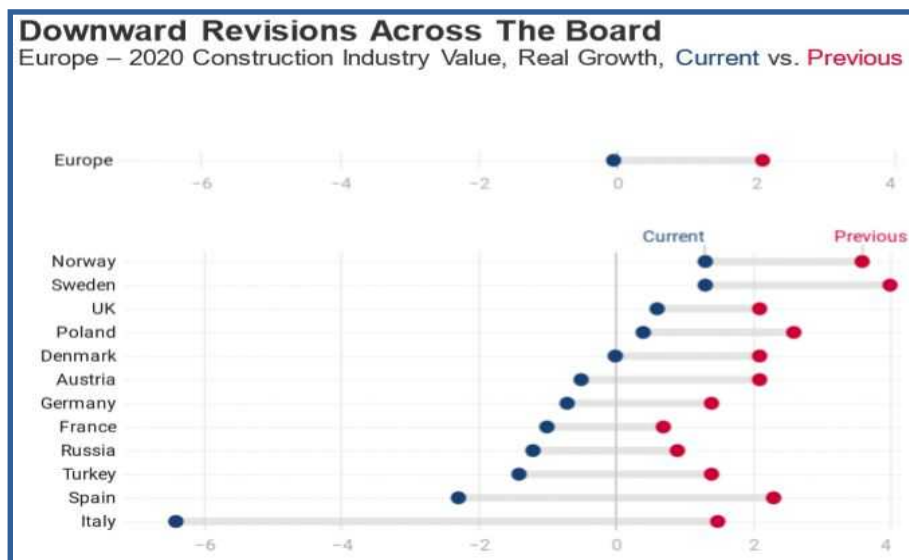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 중국의 일대일로정책(BRI)에 기반을 둔 아시아지역 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계획 또한 중·단기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BRI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가의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될 전망

<유 럽>

- 유럽지역 내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이미 강한 수축단계(Sharp contraction)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됨
- 특히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철, 기계 등의 부품 및 자재가 유럽지역 특성상 상당 부분이 ‘EU 역내 무역(Intra-EU Trade)’ 형태로 조달되고 있어 유럽 주요 건설사들은 EU 정부의 도시봉쇄조치와 무관하게 일시적인 건설 중단에 대한 검토 및 시행을 이미 단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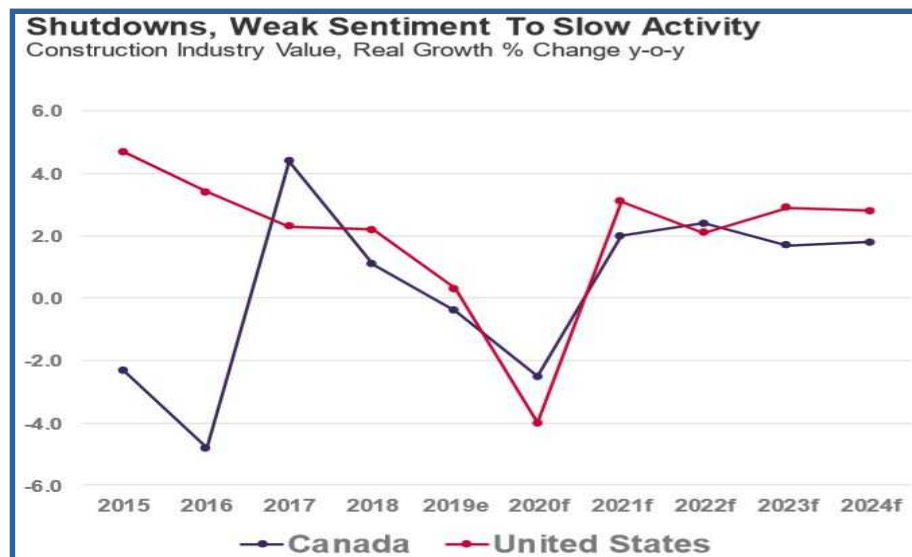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 일상적인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유럽지역 건설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은 2020년 하반기는 물론, 2021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건설현장 공사 중단 명령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행가능 여부 또한 미지수임

<북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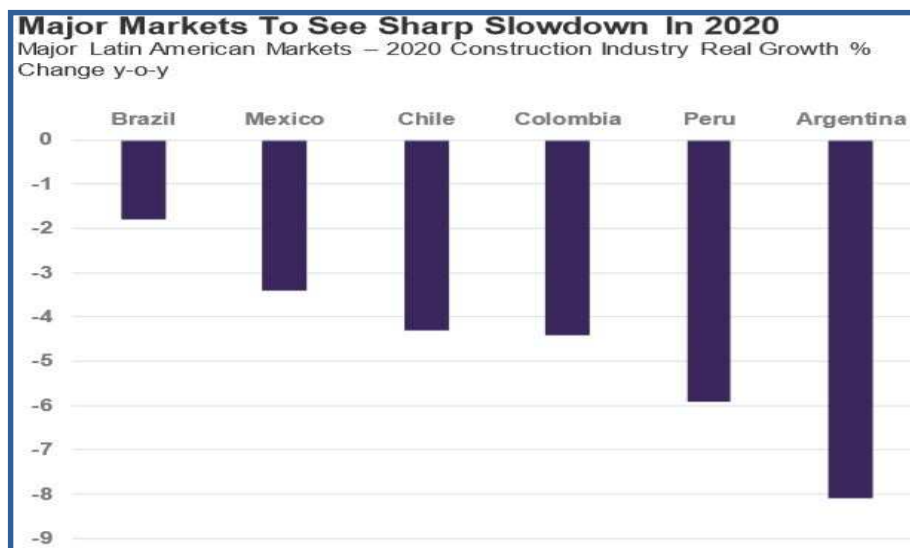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두렷한 미국의 경우 Fitch의 기존 2020년 건설경기 실질성장률 전망치(1.8%)보다 4.0% 감소한 -2.2% 역성장이 전망되며, 캐나다 또한 기존 전망치(2.1%)에서 2.5% 폭으로 감소한 -0.4% 성장률을 보이며 북미지역 모두 2020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전역에 내려진 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자발적 셧다운(Voluntary shutdowns)’ 및 ‘필수 셧다운(Mandatory shutdowns)’현상이 대부분의 주(州)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통계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Jobless claims)와 급격한 투자심리지표 악화로 인해 2021년 경기상황 또한 난망 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로금리를 레버리지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골자로 하는 4차 경기 부양책을 언급(Wall Street Journal, 4.12)했지만, 개인 현금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확대로 정책방향을 정한 민주당과의 입장차로 인해 단기간 내 인프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투자지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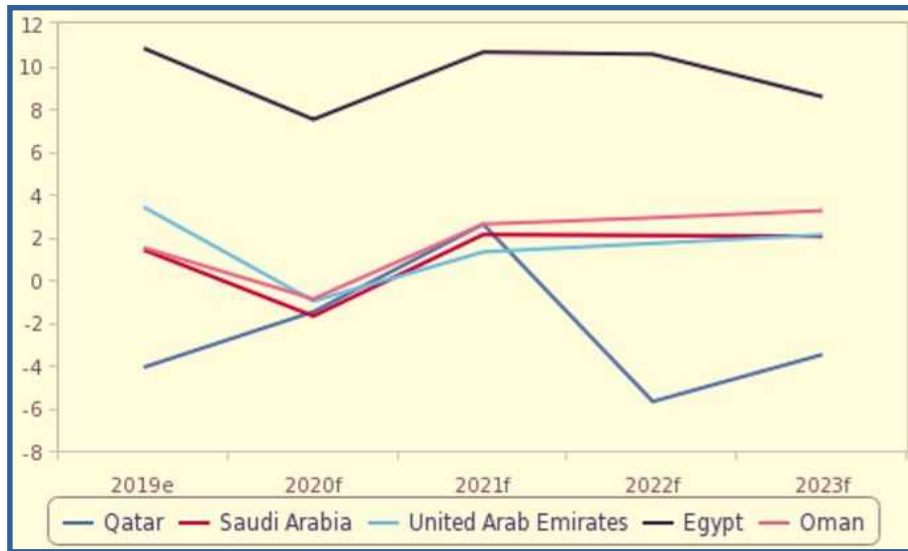
- 중·남미지역 건설경기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기존(1.7%)보다 -3.6% 폭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1.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국가 별로 편차가 큰 편이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컸던 아르헨티나(-8.1%), 페루(-5.9%), 에콰도르(-5.8%), 콜롬비아(-4.4%)를 중심으로 중·남미지역 건설경기 악화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임
- 이들 국가들은 정부의 건설현장 강제 섯다운 조치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유럽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재 및 부품 수급 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

<MENA 주요국>

-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및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전년대비 기준 -62% 하락)에 따라 MENA 지역 내 주요국의 전년 대비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아랍에미리트(UAE)
 - Fitch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UAE의 전년 대비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함
- 사우디아라비아
 - 메카(Mecca)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인 그랜드 모스크(Grand Mosque)를 비롯한 대형 건설현장 일시 섰다운 및 정부의 신규 프로젝트 발주 시기 연기 결정에 따라 사우디의 전년 대비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함
 - 사우디 정부의 대응 사례로 보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보다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금 제공 정책을 펼쳐 왔지만, 국제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사우디 정부의 지원금 자금조달 여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건설현장 섰다운 영향으로 인해 Fitch는 이집트의 전년 대비 건설경기 실질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9.7%에서 7.5%로 -2.2% 폭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MENA 지역 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내 플러스 실질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 FitchSolutions (2020. 4)]